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스피리돈 주교 / 12월 12일

루가 제10주일

성 미나, 성 에르모게니, 성 에브그라포스 순교자

제2조 /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조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성탄절 전 시기송 / 205, B 239
- 사도경: 에페소 6, 10-17 / 봉독서 345
- 복음경: 루가 13, 10-17 / 129, B 7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기도에 대해”

성인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녀들에게도 성인처럼 많이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성인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느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당신 형상에 따라 닮아가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언젠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와의 대화를 절대 거절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절대 ‘싫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의 간청을 들어주듯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큰 사랑으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려 합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은 나라의 지도자와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바람은 그냥 바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니다. 왜냐하면, 그는 함부로 여러분을 만나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내치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한 여러분과의 대화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림

11살 탈북 소년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먼저 탈출해 한국에 사는 엄마를 찾아 중국을 가로질러 베트남에 인접한 라오스라는 나라로 밀입국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탈출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엄마와 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문에 걸려 현지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엄마가 그곳으로 찾아갔지만, 면회조차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울부짖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겠지요. 이런 비극이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을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가없는 모자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친자확인 절차를 밟아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엄마를 따라 아이도 한국 국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뜻있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엄마와 아들은 이제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쁜 소식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기다림, 그들은 희망을 기다립니다. 행복한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이 탈북 엄마와 아들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또 뭔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자신이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크고 작음이 있

겠지만 그리고 내용이 다를지는 몰라도 뭔가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성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글자 그대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분명 비할 바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림절은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은 내 믿음 안에서 구세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에 그 희망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이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만의 소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어 신음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사는 이들, 또한 그들을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희망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11살짜리 탈북 소년이 꿈에도 그리던 엄마를 다시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결하게 비운 마음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는 기쁜 소식이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합시다 성탄절 금식에 대한 생각

정교인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교회가 정한 금식을 지킵니다. 이때는 육고기와 유제품, 달걀, 치즈 따위의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단, 11월 15일에 처음 금식을 시작해서 12월 17일까지는 생선이 허용됩니다.

금식은 정교인의 영적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은 만일 금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정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금식을 지키는 것과 같은 영적 수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가볍게 해주어 영적으로 성장하기 좋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며, 또한 ‘파토스’(παθός: 영어로는 passion, 우리말로로는 흔히 정념[情念]이라 번역함. 인간적인 온갖 욕망과 걱정을 가리킴.)와 싸우는 데 필요한 힘을 얻고자 하기에 이 금식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금식이 그저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먹는 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금식을 하지 않을 때 보통 먹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야채나 ‘비건 수프’(vegan soup: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먹는 수프) 같은 단순한 음식을 피하고, 금식용이 아닌 음식처럼 단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면, 금식의 진정한 뜻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 때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받은 기간을 굳세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 아타나시아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12월 11일(월) 축일을 맞이하시는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어, 주님의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성탄절 예배 일정

- 12월 22일(금) 오전 : 성탄절 대시과(1, 3, 6)
오후 : 9시과
- 12월 23일(토) 오전 : 성탄 전야 조과
오후 : 주일 대만과
- 12월 24일(일) 오전 9시 : 주일 조과,
성 요한 크리스토폴로스 성찬예배
오후 : 성탄 축일 대만과
- 12월 25일(월) 오전 : 성탄 축일 조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성탄절 축일 행사, 사랑의
오찬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 철야 예배 ▷ 지난 12월 1~2일 1박 2일로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사제, 로만 카프작 사제, 안토니오스 임종훈 사제, 요한 박인곤 보제의 공동 집전으로 성 안드레아 사도와 성 뽀르피리오스 수도사제의 축일을 기념하는 철야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약 40여 명이 참여하여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새벽 2시 30분까지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석후소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까논, 예수기도,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대주교님께서 축일을 맞이하는 두 성인의 공통된 덕인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철야예배 후에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잠시 모두 취침한 후에 2일 오전 10시에 1시과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한 후, 주교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야고보서 성경공부’ 모임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 『성 대 바실리오스』 : 저명한 교부학자 스틸리아노스 파파도폴로스의 저서 『카파도키아의 빛나는 별, 온 교회의 위대한 스승. 성 대 바실리오스』가 박용범 요한 교우님의 정성스런 번역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폴로스』에 이어 「정교회 교부총서 2권」으로 기획된 이 책은, 수도자들의 큰 스승이시고, 또한 케사리아의 주교로서 정교 신앙의 수호와 교회의 일치를 위해 평생 투쟁하시고 헌신하신 위대한 성인 바실리오스의 역동적인 생애를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교회 신자들 모두 이 책을 통해 성인의 위대한 생애를 알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바실리오스 성인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와 함께 하는 대림절 촛불기도회 개최’ ▷ 지난 12월 3일(일)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는 안토니오스 임종훈 사제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주간 대림절 촛불기도회에 참석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습니다.